

보도자료

2010년 11월 15일(월) 17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기획관 전파방송관리과 송경희 과장(☎ 750-2250)
전파방송관리과 김종학 사무관(☎ 750-2251) jhak@kcc.go.kr**“국산 방송장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국내 방송장비 품질을 검증하는 전문인증기관 개소 -**

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 위원장)는 15일(월) 오후 경기도 분당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방송사 사장단을 비롯한 산·학·연·관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소식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2015년 세계 방송장비 시장이 9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 전망되는 가운데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가 국산 방송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고, 방송사와 제조사간 상생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는 방송사·제조사·학계·연구기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술협의회’를 통해 전체 센터운영 및 인증대상 방송장비를 선정하며, 산하에 시험규격을 개발하는 “시험규격개발위원회”와 인증 여부를 심사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의 주요 업무는 ▲시험장비 및 전문 시험인력을 지원하는 개발지원시험 ▲방송장비간 호환성을 확인하는 상호운용성시험 ▲우수제품과 성능을 비교하는 벤치마크시험 ▲방송장비의 표준적합성을 확인하는 인증시험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방송장비 개발 초기 단계부터 품질향상에 이르는 최종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방송장비 시험인증을 통하여 제조사는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결하고, TTA 인증서를 통해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증 받을 수 있으며, 방송사는 원하는 규격대로 개발된 고품질의 국산 방송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시험인증센터 개소식을 계기로 올해 선정된 HD 방송장비에 대한 품질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3DTV, AT-DMB, UHDTV 등의 차세대 방송장비에 대해서도 시험인증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무엇보다 정부뿐만 아니라 방송장비의 수요자인 방송사와 제품을 개발하는 장비업체 등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붙임 : 방송장비 인증센터 설명자료 1부. 끝.

[붙임]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

□ 개 요

- (설치 및 운영) 정부와 방송장비의 수요자인 방송사(KBS, MBC, SBS, EBS 등), 제조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10~'13년까지 차세대 방송(HD, 3DTV 등) 관련 장비의 Lab/현장테스트 및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운영
- (주요기능) 방송장비 제조업체가 우수한 방송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방송장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방송장비의 고품질화 달성
- (소요예산) '10년 23.5억원, (총 4년간 : '11~'13년)

□ 추진체계

